

# 韓國의 地理學 研究傾向에 관한 再考

金元經\*

우리나라 지리학계는 서양의 이론과 연구경향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경험적 연구, 야외조사 연구에는 무관심하였다. 어느 지역이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지역의 공통성을 추구하고 model화, 이론화하게 되면, 그 model은 다음의 연구에 인용되지도 않고 다음 세대의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틀렸기 때문이다. 결국은 연구성과가 누적되지 않고 개개 연구의 하나하나는 砂上樓閣이 되고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대적으로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空間法則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因子, 指數, 나아가서 model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검증되고 시험되거나 도출한 것들이다. 우리의 지리적 조건에 맞는 방법과 방법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연구해 본 주제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연구한 것이면 '오래되고 낡은 研究' 라고 비판하면서 '좀 더 새로운 것'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의 편협성은 우리나라 지리학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은 결국 성급한 일반론을 도출해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學際間 接近을 하면서 system approach를 시도하고 있는 연구를 보고 이것이 지리학 논문인가 하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다른 학문분야가 지리학의 영역을 침입 내지는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것은 사고의 모순이다. 학문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 세대내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 시대인 21세기 100년간의 어느날, 우리들의 후세들이 공간법칙을 발견했을 때, '20세기 말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회를 창설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발로, 눈으로 뒤지면서 기초연구를 해 두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적된 연구가 오늘의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主要語 :** 基礎的 研究, 累積된 成果, 學際間 研究, 韓國의 方法과 方法論

## 1. 누적된 연구를 간과하고 있다.

Schaefer(1904~1953)가 1953년 발표한 논문 「지리학에 있어서의 예외주의: 방법론적 검토」가 미국에 있어서 1960년대의 計量革命을 있게 하는 큰 계기가 된다. 또한 이 연구가 지리학 연구의 관점을 공간원리추구, 공간법칙추구로 전환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 논문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지리학이 개개의 지역을 연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원리 혹은 과학

적 법칙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의 논문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지리학이란 개개의 계통과학에서 발견된 지식들을 모아서 종합화하는 고유한 統合科學(integrating science)이라고 간주한다. 지리학은 고유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하에서 지리적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리학이 보다 새롭고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리학의 발전이 다른 사회과학(특히 경제학)들보다 늦었다고 주장하였다. Schaefer는 과학이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며, 설명은 법칙을

\* 부산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다른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리학에서도 주요 pattern을 이루는 공간적 변수들간의 관계 즉, 空間關係(spatial relation)를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서 설명하는 과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Schaefer는 주로 例外主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는 지리학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연구한다는 독특성 때문에 지리학의 방법론이 다른 사회과학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을 피력하는 지리학자들을 例外主義者(exceptionalist)라고 지칭한다.

셋째, 그는 Kant의 '예외주의 사고'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Hettner와 Hartshorne의 사고에 대해 비평을 가하였다.

네째, 공간적 과학인 지리학에 법칙추구적 접근방법을 적용시킬 때 야기되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지리적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데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chaefer는 지리학이 법칙추구적 학문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영향을 받으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의 연구경향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상황을 간과하고 넘어간 사실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chaefer는 독일에서 스위스, 프랑스, 영국을 거쳐 도피하다시피 미국에 1938년에 정착하고, 2차대전 중 Iowa대학의 지리학과가 창설되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李喜演, 1991). 이때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지리학 중에서도 특히 Hartshorne의 '地域論'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리학자들은 이 정도의 관점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Schaefer의 눈에는 근 200년 동안 누적되어온 지리학적 연구업적(그것이 地域性 강조이든, 전통지리학적 관점이든, 혹은 지지적, 지역기술적이든 간에)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누적되어온 연구업적을 기반으로 하면, 이제는 지리학도 다른 자연과학이나 사회과

학(특히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법칙추구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앞에서 말한 논문을 썼을 것이라는 사정을 우리나라 지리학자들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리학에서는 미국의 연구경향만 받아들였을 뿐, 그 기반으로 깔려 있었던 오랜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많은 연구업적 내지는 경험적 연구에는 무관심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만 받아들였지 그 제도의 저변에 깔려있는 타인존중, 개인존중사상 등을 도입하는 데는 무관심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사상은 받아들였으며, 그 저변에 놓여있는 淸教徒的 倫理(특히 칼빈주의)를 도입하는데는 실패했다.

사회과학에서 Max Weber를 흔히 引用하고 있고, 그의 방법론에 의해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세례를 받았다'고 자주 이야기 한다. 그런데 Weber의 그런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의 도시에 관한 연구의 경우, 그가 수 많은 동서고금의 자료를 섭렵하고 숙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Thuenen의 孤立國理論이 1826년에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발견은 100년도 지난 후에 1933년 Waibel에 의해서 빛을 보게된다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20년대에 Burgess는 Thuenen의 접근방법에 따라서 同心圓地帶說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Thuene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다.

Christaller의 中心地理論이 1932년에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1950년대에 와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0년대 초기부터 Ullman과 Harris는 Christaller를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1948년에 多核心理論을 발표한다. 그리고 1950년에 Hartman이 CBD를 연구할 때, Christaller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관심하였다.

Darwin의 「種의 起源」, 進化論을 읽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의 방법론에 따라서 사회과학도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론을 도출해

낸 과정, 젊은 시절 Beagle호를 타고 죽을 고비를 몇번이나 넘기면서 수년 동안에 걸쳐 세계일주 탐험을 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W.M. Davis의 초기논문들을 보면, 많은 현장답사와 경험적이고 기술적인 연구가 행해졌고, 이때의 논문 한 편, 한 편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누적되고, 여러 지역에 관한 연구가 완성되고 난 후에 地形輪廻說이 제창된다. 우리는 지형윤회설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 비판도 하지만 이것이 나오게 된 연구태도,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도 연구경향은 받아들였지만 그 경향을 형성케 한 역사적 배경,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경험적 연구, 야외조사연구에는 무관심하였다는 것이다.

環境論을 이야기 할 때, 그 도입부분에서 Montesquieu(1748)의 『法の精神』을 종종 인용하고 있다. '한 나라의 법은 그곳 국민의 지리적, 역사적, 심리적 특성이 고려된 고유한 법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고유한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좀더 사고를 진행시키면, 우리나라 지리학의 사정에 맞는 연구방법과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학에 있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왜,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어떻게 있느냐?' 하는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어느 지역이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지역의 공통성을 추구하고 model화, 이론화하게 되면, 그 model은 다음의 연구에 인용되지도 않고, 다음 세대의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틀렸기 때문이다. 결국은 연구성과가 누적되지 않고 개개 연구의 하나하나가 사상누각이 되고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리학의 연구를 보면,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할 때, '그 사람 연구의 결과는 이랬다. 여기에 나의 연구를 보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든가, 혹은 '그 사람 연구는 저렇게 했지만 나는 관점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연구했다'는 식의 전개 보다는 연구경향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 밖에 인용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이것은 이전의 연구가 그 다음 연구의 기초가 되지 않고 있다는 실례일 것이다.

1958년~1961년에 『Economic Geography』를 통한 傳統地理學(Descriptive Geography)과 計量地理學(Quantitative Analysis) 간에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이 양자들의 상대에 대한 비판을 요약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 지리학자들이 계량지리학에 대한 비판을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수학화하여 장난을 하고 있다.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는 데 너무 서둘러, 이것들로부터 이탈된 사항에 대한 처리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종합시키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리학의 연구 대상이나 본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곳이 있다.'

이에 대해서 계량지리학자들도 다음과 같이 반박을 가하고 있다. '계량화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유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의 개발 자체가 하나의 뛰어난 학문이다. 지역 개개의 기술이나 특수성의 고찰만으로는 일반성과 법칙성의 추구는 불가능하며, 그것의 추구는 지리학의 이론형성에 직결된다. 계량화로 부터 추출된 방법론은 지리학의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결코 아니다.'

계량적인 접근방법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演繹的 方法을 채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역적 방법으로 접근하려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충분히 시험하고 검증되고 또 연구된 후에야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지리학에

서,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자 혹은 지표, 지수, 나아가서 model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검증되고 시험되거나 도출한 것 들이다. 아무 여과없이, 그리고 아무 논쟁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원의 면적을 구하는데 사용한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미국의 도시는 도시라는 범주 속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도시내부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미국에서 사용한 지표와 지수, 기술 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大邱市의 東城路(金元經, 1975)와 釜山市의 光復洞 및 南浦洞(金元經, 1979) 연구에서, 미국 도시의 CBD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한 Murphy와 Vance 등의 지수(Murphy and Vance, Jr., 1954; Murphy and Vance, Jr., 1954; Murphy, Vance, Jr. and Epstein, 1955)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Tulsa와 비교해서 東城路의 토지이용 집약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또한 光復洞 및 南浦洞에서도 Murphy와 Vance의 CBD 요건의 지수가 1.6~3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전술한 오류를 범한 전형적인 연구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지리적 조건에 맞는 방법과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2. 논문을 위한 연구를 할 것인가?

영남지역의 도시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大邱에 대한 것 중 「中小纖維工業의 空間變化: 大邱西部의 境遇」(林永大, 1971), 「大邱市中心 商店街의 地理學的 研究: 東城路를 중심으로」(金元經, 1975), 「家庭主婦의 日常的 空間行動과 時間」(金美亨, 1983), 「韓國의 都市貧民地域 研究」(裴淑姬, 1991) 등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이들의 연구를 평가, 혹은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논문 이전에 先驗的인 연구가 오래 전에 선행되었어야만 했다는 뜻으로.)

대구시 서부지역의 중소섬유공업의 공간변화

에 대한 연구에 앞서서 이미 '大邱市 工業地域의 分布', '大邱市 規模別 工場의 分布', '大邱市 纖維工業의 分布' 혹은 '大邱市 業種別 工業의 分布'에 관한 접근이 선행되어 있었어야 上記의 논문이 더 빛나게 되었을 것이다. 동성로를 大邱의 중심상점가로 보고 연구한 예에서도, 이와같은 논문이 나오기 이전에 '大邱市 商業地域의 分布', '大邱市 CBD의 境界設定', '大邱市 CBD의 構造'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어야만 했다.

가정주부의 일상적 공간행동과 시간에 관한 논문에서는 大邱市의 南端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지구인 수성구 파동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 연구에 앞서 '大邱市 住宅地域의 分布', '大邱市 住宅地域의 階級別 分布', '住宅地의 空間變異', '住宅地帶를 중심으로 한 大邱의 都市化', '大邱市民들의 空間行動과 時間' 등에 관한 연구를 먼저 수행했어야만 했다.

한국의 도시빈민지역연구에서는 大邱市 효목1동의 梨化村을 연구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大邱市 빈민지역의 분포가 한 章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전에 '大邱市 機能地域의 分布', '上級, 中級, 下級住宅地의 分布', '大邱市 slum의 形成過程', 'Slum을 중심으로한 大邱의 都市化' 등의 연구가 시기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그 성과가 누적되어 있었어야만 했다.

또한 「大邱市 都市計劃의 地理學的 研究」(崔奭周, 1994)는 이미 30년 전에 행해져서 그 이후 大邱市에 대한 도시지리학적 접근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이 연구가 이제야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아쉬운憾을 숨길 수 없다.

공업지역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상업지역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先行的인 연구나 經驗의 연구, 기초적인 연구가 없이 공업공간이동, CBD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砂上樓閣의 형편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그러한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가 벌써 수십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망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先行되어 있었어야 할 연구내용들은 이들 연구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前述한 논문에는 포함시키기 곤란한 것들이다. 요는, 시대적으로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법칙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기초적인 연구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해야지 지리학자의 고유한 연구나 학위논문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연구가 연구비를 받는 것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같은 기초적인 연구는 '오래되고 낡았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오래된 것이냐라고 反問해 보고 싶다.

예를들면, '大邱의 機能地域 分布'라고 하는 研究主題가 있다고 提示해 보면; 그것은 낡았고 캐케묵은 것이라고 비평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그러한 연구를 해 보았다고 오래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미 연구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와같은 연구들이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空間原理追求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초적인 연구부터 해야겠다라고 하는것이 先進文物을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思考의 偏狹性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연구가 계속 누적되고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예를들면, 慶北大學校의 洪慶姬 名譽教授님의 「大邱市の 都市勢力圈」에 관한 一聯의 연구(1979)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分布圖 上으로는 가까이 있는 軍威郡이 大邱와의 상호관련성이 먼 곳에 있는 지역보다도 항상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八公山이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洪 教授님의 제자와 후배들 중에서 누가 軍威郡과 大邱와의 연관성을 더 세밀하고 微視的으로 접근하여(다른 勢力圈 혹은 다른 郡도 마찬가지로), 大邱市 勢力圈의 정체를 확실히 밝혔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누가 case study로 세밀한 勢力圈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선배 교수님, 혹은 恩師님께서 다한 것을 가지고 舊態依然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본인도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助言을 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空間秩序를 밝힐 기회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洪 教授님의 「大邱市 周邊地域 中心地의 機能」(1975)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약방, 모터사이클商, 시계점이 400人(慶山郡 南山面 中心)에서 출현하는 것은 이 보다도 機能이 적은 urban center의 市街地 人口가 더 높게 計定된 관계로 본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threshold population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人口規模에 비해서 range of good이 넓은 商店(function)이 人口 400人的 慶山郡 南山面の 中心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그의 제자나 후배가 南山面の 中心地를 세밀하게 접근하여 분석을 했거나, Loesch의 '經濟景'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연구를 했어야만 했다. 연구의 累積效果에서 이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하나의 예를들면 慶北大學校 徐贊基 教授님이 일생의 역작으로 연구하신 '韓國農業地域區分'에 관한 一聯의 연구(1993)가 있다. 그런데 徐 教授님의 후배나 제자가 좀더 微視的으로 '慶北內陸混作地帶'(다른 농업지대도 마찬가지로)에 관해서 野外調査를 기초로 한 연구를 계속 진행시켰어야만 했다. 앞의 예와 같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이미 선생님께서 하신 연구인데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巨大都市는 4次, 5次 産業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1次産業 연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누가 한번도 微視的으로 접근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데, 현대의 都市生活의 전통은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이고, 농업사회의 전통은 수렵생활에서 유래된 것임을 인식한다면, 農業地域 연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요는, 언제, 누가 연구하였다고 낡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와같은 思考의 偏狹性은 지리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筆者 자신도 이러한 錯誤를 많이 범하고 있다. '時間과 空間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어떤 存在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時間과 空間은 같은 空間現象을 형성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思考의 기반에는 깔려있지 않았었다. 몇년전 어느 지질학자와의 대화에서 '도대체 中生代에 有孔蟲이 얼마나 많이 살았으면, 석유가 자꾸 자꾸 나오는가?'라고 물으니, '당신은 時間은 생각하지 않는가? 많은 有孔蟲이 수억년 동안 살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답을 하였다. 또 미국의 지리학 교수인 John Fraser Hart와의 대화에서 '한국은 5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사투리가 다르다. 그런데 미국은 200년의 역사만 있는데도 Minnesota와 Texas의 사투리가 왜 다른가?'라는 질문을 하니가 '당신은 時間만 생각하고 空間은 생각하지 않는가? 距離가 그 만큼 멀지 않는가?'라고 답을 하였다.

새로운 分析方法이나 方法論이 나오면, 그 방법을 사용한 학자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도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固守하고 있는데 대해서 비평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낡은 것이고 이미 내 버린 방법인데 그것을 그대로 固守하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비평한다. 과연 그것이 낡은 방법이고 내 버린 것일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계량지리학자는 전통지리학자들을 보고, '낡았다, 틀렸다'라고 할 것이다. 또 行動地理學者들은 計量學派를 보고 '平均値 자체가 허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비평할 것이다. 時間地理學者들은 또다시 行動

地理學者들을 보고 '空間만 제한된 것이나, 時間도 제한되어 있다. 時間性을 무시한 空間性이 도대체 존재할 수 있는가? 무식한 소리하지 말아라'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急進地理學者들은 이전의 모든 學派들을 '現世界の 모순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무슨 體制 擁護的인 연구만 계속하는가'라고 몰아 부칠 것이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지리학회 雜紙인 「Annals of A.A.G.」와 大韓地理學會의 雜紙인 「地理學」('93년 4호 부터는 「대한지리학회지」)에 掲載된 논문들을 비교해 보면, 人文地理學의 경우 「Annals of A.A.G.」에서 計量技法을 사용한 연구가 10% 정도이고, 「地理學」에는 27%의 논문이 計量技法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Annals of A.A.G.」의 많은 연구주제나 방법이 地域만 다를 뿐 30~40년 前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옛날 그림과 寫眞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技法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통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누적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技法을 이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험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없이는 model을 抽出할 수 있는 연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認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一般化 導出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나머지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논문"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논문일 뿐 地域秩序를 구명함에 있어 寄與하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It is nothing but the paper). 하기야, 一般論을 導出하는 재미와 흥미없이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연구하기가 참으로 無味乾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一般論을 성급하게 도출하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지리학자인 Mei Ling Hsu의 '中國의 人口現象'에 대한 강연 中 序頭에 '中國의 人口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model을 抽出할 段階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

늘의 연구발표는 다분히 記述의 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새겨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기초적인 연구와 學際間 接近이 필요하다.

우리 學會의 會則 第2條에 목적을 明記하고 있다. 여기에 '지리학 및 相關학문의 발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地域研究를 學際間 연구 혹은 system approach로 하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System analysis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System approach에 있어서 기본적인 思考 중의 하나가 隣接科學을 이용할 수 있는데 까지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의 여러 분야에서 21世紀를 대비함에 있어 地理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學際間 研究였다.

우리는 흔히 地域科學, 環境學, 計劃學 등이 지리학의 固有分野인 空間問題를 취급하면서 지리학의 영역을 침입 내지는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지리학자가 다른 學問分野의 성격을 띤 연구를 하거나 인용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지리학 논문인가? 다른 분야의 연구가 아닌가하고 拒否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思考의 矛盾이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價値觀 혹은 論理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矛盾된 思考라고 비판한다. 다시 말하면, 지리학의 範圍와 研究對象을 확장시키고 있으면서, system approach를 試圖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연구를 지리학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비평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學際間 研究를 素朴하긴 하지만 시도한 拙稿(金元經, 1985)의 일부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이것을 學際間 研究로 볼 수 없다고 비평할 지도 모른다. 나아가서 地理學의 接近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오류를 범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學際間 研究이고, 어떤 것이 地理學의 接近인가 하고 묻고 싶다. (Geography is

what geographers study.) 그러나 분명한 것은 筆者는 正統的인 地理學徒라는 사실이다.

다만, 都市의 內部構造를 밝힘에 있어, 構造는 形態와 機能의 複合體이며 또한 形態와 機能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形態에 먼저 接近해야 한다는 當爲性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學問分野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都市와 다른 學問을 관련시켜 본 것이다.

먼저 考古學과 相關하여; 古新羅의 미술에는 일종의 威嚴과 古拙한 憂鬱이 서려있다고 한다. 완성된 古新羅土器는 新羅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신라토기의 특이한 성격이라 할까, 매력은 자연 그대로의 빛어진 흙, 色感, 表面處理의 朴納, 그리고 종교적 냄새를 띠고 있다. 또한 非機能的·非現實的이면서도 철저한 機能爲主의 가장 현실적 자연스러운 형태들의 완전한 調和라고 한다. 器面에 새겨진 文樣도 幾何學的인 線文이 아니면 呪術的인 童話的 圖案이다. 신라토기는 이렇게 新羅 특유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朝鮮磁器와 공통된 한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製作態도의 完全한 缺如이며 철저한 無作爲, 그리고 무엇보다도 無執着 또는 疏忽이다. 불합격품으로 廢棄되어야 할 그릇들이 그렇지않고 王陵에 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결국 朝鮮을 거쳐 現代까지 韓國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完全한 것'에 대한 無關心, 無執着이다(金元龍, 1981).

인간이 '完全한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完全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完全'으로 향하려는 意志와 行爲가 있을 뿐일 것이다. 都市에도 완전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완전으로 향하는 途上에서 나타나는 過程의 형태가 있을 뿐일 것이다.

古代新羅에 있어서는 土器나 工藝品은 機械的인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匠人, 또는 일정한 供給商人을 매개로 하는 人間的 存在 또는 精神的 共有物, 精神的인 現象의 産物이나 결과로서 받아 들여졌던 모양이다. 신라토기의 멋은 철저하게 世俗的이면서 또 일면으로는 世俗을

떠나버린 듯한 느낌에 있다. 또한 二律背反의 성격, 흙을 묻히고 거름을 바른듯한 강한 흙내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피이한 정신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發散시키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不可思議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都市는 人間의 존재이며, 都市居住者의 精神의 共有物이다. 인간이 창조한 都市는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비인간적이기도 하다. 都市에서 비인간적이란 것은 世俗의인 것이며, 오히려 인간적이란 말이 世俗을 떠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二律背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都市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제멋대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不可思議의 조화가 있고 규칙성이 있으며 空間原理가 존재하고 있다. 신라의 토기와 都市에는 같은 흐름이 있고, 느낌이 있다.

形而上學과 관련하여; 형태로서의 存在者가 不動으로서의 定着에 성공한다고 할 때, 그것은 構造的인 機能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構造的인 機能의 근거가 되는 것은 형태에 있어서 중심에 위치한 第三의 要素이다. 그 중심에 위치한 第三의 要素가 그 완전성을 대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중심으로 부터 외곽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은 그 중심적인 完全性에 비해 不完全한 순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構造로서의 機能이라고 할 때, 그 構造로서의 機能의 完全한 중심으로 부터 출발하여 외곽에 이르러서는 不完全한 機能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金昌經, 1982).

都市에 있어서 중심부는 그 機能이 외부보다 完全하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都市의 內部構造에 있어서 먼저 그 형태를 밝히고 그다음 構造的인 機能을 분석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形態와 構造的인 機能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過程의 일환으로, 그리고 相互依存 혹은 相互作用 관계에 있는 것이다. 形態와 機能 그리고 過程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어서 實體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할 진로인 것이다.

따라서, 構造的인 機能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불완전 하다는 것은 결합의 정도에 있어서도 그 論理性은 같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을 形態로서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形態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形態를 能力化 한다는 것을 構造라고 할 때, 構造는 形態에 만족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構造가 形態에 만족을 부여함으로써 形態도 構造에 만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은 形態가 構造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며, 構造가 形態에 만족을 부여한다는 것은 構造도 形態에 의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構造가 形態에 의존할 수 없다면 그 形態를 保障할 수 없기 때문이다.

形態가 필요로 하는 자극이 있으면 공급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자극이 있으면 흡수해야 된다. 이것이 그 形態로 하여금 위치를 지키게 해야 되고, 그 위치는 刺戟을 吸收하고 피해야 하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構造的인 能力에 의하여 다른 地域과 都市는 距離로서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또 都市內部에 있어서 중심부와 각 機能地域의 위치가 보장된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構造的인 능력은 그 形態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構造가 形態를 대표한다고 할 때, 그것은 形態의 內部에 근거한 外部能力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形態의 外部的인 상처를 대표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都市形態 그 자체는 外部經濟의 영향을 받아서 都市形態를 구성하고 있다. 外部經濟(혹은 外部刺戟, 效果)에 의해서 變形(變化)되어가는 過程에서 상처가 생기게 된다. 이것이 都市空間에 투영될 때 그것은 都市地域의 특성으로 남게된다.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生態學的인 接近에서; 生態學的인 방법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人間生態學(human ecology)이란 말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사용한 사람은 1921년 발행된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의 공동편찬자인 R.E. Park와 E.W.



Burgess였다. 그 이후부터 학문의 한 분야로서 植物·動物生態學과 함께 人間生態學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특정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有機體 간의 수 많은 관계의 종합을 'biotic community' 라고 하는데, 이 community는 居住地의 自然事象과 더불어 ecosystem을 형성한다. 生態學은 ecosystem의 생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한다(Thomlinson, 1989, p.1~10).

自然界에는 生態的 地位가 특수화된 것과 일반화된 것이 있다. 예컨대, 어느 한 種의 植物의 특수부분만 먹는 곤충도 있고, 수십 種의 다른 植物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다. 특수화된 것은 그 자원 이용면에서 흔히 능률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들의 자원이 충분히 공급될 때에는 대단히 繁殖한다. 그러나 環境의 혹은 生物的인 현저한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는 抵抗力이 매우 약하다.

CBD에 있어서 특수기능과 일반기능의 예를들면 특수기능의 경우, 그 機能(汽車驛, 都賣市場, 野菜市場, '새벽市場' 등)을 結節시키게 하는 推進力産業(汽車驛 등)을 立地시키면 그 地域이 급속히 번창해 지며 그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그 推進力産業이 없어서 버린다면 또 급속히 그 地帶는 쇠퇴하게 되는 投下된 資本의 質性이 약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일반기능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劇的인 영향은 없으나 한편으로 彈力性이 없이 계속되어 가는 경향이 짙다.

일반적인 機能은 특수적 機能에 비해 集積의 강도가 낮긴 하지만 景氣變動을 포함한 餘他的 변동에는 비교컨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수화되어 있지 않는 種류의 生態的 地位는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령 地域的으로 매우 풍부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다. 自然界의 성숙된 生態系에는 특수화된 種과 일반화된 種의 兩力을 포함하여 多種多樣的 種류로 구성되어 있고, 都市의 機能도 이와같은 형태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의 특정부분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種류는

생존을 위한 地域的 條件(寒暑·乾濕)에 의할 뿐만 아니라 地理的 條件에도 의존하고 있다. 大洋이나 大陸에는 각각의 고유한 動植物相이 있다. Australia에는 캥거루가 있으나 他大陸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고, 新大陸에는 벌새와 선인장이 있으나 舊大陸에는 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都市内部에서도 釜山의 경우, 中央洞에는 사무실의 분포가 탁월한데 他地域은 그렇지 못하다. 西面에는 機械附屬店이 集積되어 있는데 또 다른 地域에서는 그와같은 형태를 볼 수가 없다. 細長型的의 都市에서는 副都心이 結節되는데, 團塊型的의 그것에는 副都心이 발달하기가 쉽지 않다. 특수한 種이나 機能은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과연 어떠한 구조를 가진 地域에서 특수한 機能이 立地할까?하는 문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空間 중의 어느 부분일까?하는 의문에 먼저 解答을 구해야 하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都市内部構造를 밝힘에 있어서 그 形態를 먼저 고찰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 주고 있다.

生物種의 群集에서 가장 특징적이고도 일관된 특색은 비교적 소수의 普遍種(個體數가 많거나 또는 生物體量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種)과 비교적 다수의 드문種(어떠한 時間, 空間에서 보아도 항상 드문 種)의 兩者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어느 轄區수림 地域에 50種의 식물이 있다고 하면, 그 중 6種이나 그 이상 數의 種이 林木量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生態學的 group分類에 의한 生態的 優占種(ecological dominants)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都市内에서, CBD에는 수 많은 種류의 業種이 立地하고 있으나 의류점과 사교오락기능의 占有率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上記에서 예를들어 본 中央洞의 경우, 수 많은 사무실 중에서도 海運과 관계되는 業體가 우세한 分布를 보이고 있는 것은 都市가 하나의 生態系임을 암시해 주는 형태이며 구조일 것이다.

生存條件이 極地와 같이 혹심하거나 孤島에서와 같이 地理的 距離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種의 總數가 감소된다. 生物體의 크기도

중요한 것으로서 대형생물 보다 소형생물의 다양성이 크다. 예를들면, CBD는 소규모의 同種의 多數 機能과 대규모의 異種의 少數 機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階層이 낮아짐에 따라서 同種의 대규모나 혹은 소규모의 異種 등으로 그 pattern은 변화할 것이다. 또 中心地에서 멀리 떨어진 地域의 機能數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물론, 管理된 양어장이나 농장 같은 곳에서는 인간이 강한 選擇의 壓力을 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환경에서 조차 소수의 普遍種과 많은 稀貴種이라는 pattern이 나타난다.

都市内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 것이, 비록 都市計劃이 수립되어 강한 제도적 장치로서 地帶制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pattern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機能地域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樣相일 것이다. 최대의 다양성은 無機環境의 勾配의 적당한 또는 中位의 범위에서 생긴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金遵敏 外譯, 1979). 釜山市 内部에서도 III階層의 中心地인 '朝訪 앞'에서 機能數가 가장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金元經, 1992).

種間競爭에 있어서, 近緣種은 같은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이 많다. 만약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energy源을 이용하고 있거나 一日 중의 다른 시간이나, 다른 계절에 활동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生態의 地位를 점유하고 있는 일이 많다.

양복점과 양장점이 같은 장소에 立地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energy源 즉, 性別로 다른 顧客을 유치한다. 또한 금은보석점과 술집이 같은 장소에 입지하고 있다면, 이들은 다른 종류의 顧客과 그 顧客 吸收時間이 낮(혹은 저녁)과 밤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들면, shopping street와 市場이 그 인근에 立地하고 있어 각각이 흡수하는 顧客이 같은 空間을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利用時間帶는 '市場보는 때'와 'shopping hour'로 달라지고 있다(金元經, 1984). 그리고 家庭主婦들의 '市場보는 때'와 'shopping할 때'의 복장이 다르다.

生態系가 어떤 종류의 安定性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個體群間的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관계가 하나의 等式과 같이 최후에는 平衡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類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고일 것이다. 두 種 또는 그 이상의 個體群間的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進化의 一聯의 段階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偏利共生(commensalism)은 한 個體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다른 個體群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단순한 형의 적극적 상호관계이다. 官公署 부근의 司法代書所, 印章店, 複寫店, 市場 주위의 露店商 등의 立地가 이와같은 예일 것이다. 이 관계에서 進一步하여 한편은 寄生으로, 또 한편은 協同者가 된다. 만약 두개의 個體群이 서로 이익이 있으나 그 이익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정도인 때는 이 관계를 原始協同(proto-cooperation)이라고 한다. 酒店集積地와 旅館, 沐浴湯과 理·美容院, 眼科와 眼鏡店 등이 이 예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사회관계가 雙方의 個體群의 생존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相互扶助(mutualism)란 말로 이 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對面接觸(face-to-face contact)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사무실 등이 集積하고 있는 業務機能地域에서의 관계가 이 예에 속할 것이다.

文化人類學的 接近에서; 人類文化의 가장 중요한 네가지 내용물은 첫째, 道具와 技術; 둘째, 言語와 象徵을 이용할 수 있는 能力; 셋째, 良心과 宗教 및 信仰體系를 포함한 道德律; 넷째는, 이러한 道德律을 근거로 한 사회조직 등이다. 이 네가지의 文化要素는 함께 생성되었으며, 이 文化要素가 전부 제시되어야만 人類文化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權壽九 編譯, 1981). 道具는 우리들이 환경에 順應(acclimation)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環境으로 부터 energy를 抽出하는 방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의 기본적인 성분이 된다. 또 生態的·經濟的 關係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것이 된다.

道具 중 인간의 거주범위를 넓혀주고 또 遠距離 移動을 가능케 한 것은 특히 運輸能力의 발

달이다. 進化의 段階上 Hominid들이 주로 물가에 살았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 물에 훨씬 依存的이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동물의 가죽, 타조 비슷한 새의 커다란 알 껍질이나 박(葫)을 사용하여 물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내면서, 혹은 수분이 풍부한 melon을 섭취함으로써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물가의 생활에 종말을 고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더 넓은 地域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물의 運搬이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이 Africa와 Asia를 연결하는 乾燥한 地峽을 건너는 漸進的인 移住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들은 集團 相互間的 文化的·生物學的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道具 製作技術과 遺傳子를 교환하고 있었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하나의 사실, 즉, 運搬能力을 가졌다는 사실이 古代 Ramapithecus群으로 부터 現生人類의 출현에 이르는 도상에 엄청난 중요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運搬能力이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로 하여금 환경으로 부터의 독립성을 지니도록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능력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또한 食糧運搬能力은 密林居住의 類人猿을 直立步行하는 Hominid로 변형시켰던 행동양식의 일부였다. 나아가 食糧運搬은 生活根據地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狩獵採集 混合經濟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또 하나는 불의 運搬이었다. 오늘날에도 불이 지나는 感覺的 魅力을 전세계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다. 불을 다루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열과 빛에 있었다. 불은 낮을 효과적으로 延長시킴으로써 이미 대단히 사회적이었던 그들 간의 상호행동을 鼓舞시켰으며, 나아가 독특한 사회적 중심을 제공하여 社會的 紐帶를 강화시켜 주었다. 북쪽의 추운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Homo erectus는 따뜻함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또한 불은 感覺的이고 심지어 魔術的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도 모두가 불길을 내뿜으며 탁탁 튀는 모닥불의 매력을 체험해 보았으리라. 그 광경, 소리, 내

음 그리고 열기가 서로 어울려 感性의 萬華鏡을 자아내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 잡는다.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불에 의해 고조된 황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이 初期 儀禮의 중심적 要素였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金光億 역, 1983).

Platon은 그의 Timaeus에서, 사람의 몸을 덮혀 주는 모닥불은 부드럽고 密度 짙은 빛의 줄기로, 눈을 거쳐 흘러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하여 관찰자와 관찰되는 물체간에는 확실한 架橋가 형성되고 이 架橋를 건너서 물체로 부터 흘러나온 빛의 충동이 눈에 와 닿고 다시 靈魂에 다다를 것이다.

都市가 확장되고 都市化가 촉진된 것은 運送의 技術革新 이후의 일이다. 또한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都市內의 어떤 地域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都市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불의 경우,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화려한 야간의 조명이 不夜城을 이루는 中心地가 없는 地域을 都市라고 할 수 있겠으며, 전기불 아래에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地域社會를 都市的 社會라고 할 수 있겠는가? 運搬經路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移行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는 都市構造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본적인 의문일 것이다.

狩獵採集 生活樣式을 채택한 정확한 시기가 언제였던 간에, 다른 무엇 보다도 이러한 社會的 樣相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조직적 농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狩獵採集 生活에 의해 배양되고, 社會的 分配에 의해 강화된 知的裝置(intellectual equipment) 및 結束力 때문이었다. 19世紀의 産業革命과 20世紀의 奇蹟과도 같은 기술도 狩獵採集의 유산 덕택에 가능하였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많은 要因들은 內在的인 것이다. 動植物로 부터 食糧을 채집하고 분배하는 독특한 습관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했기 때문에 인간답게 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狩獵과 採集이 肉食性 動物社會構造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靈長類는 거의 예외없이 肉食主義者들이

다. 靈長類는 群居的 動物이며, 이것은 하나의 成功要因이 된다. 그런데 菜食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은 한 무리내의 개개의 구성원들을 자기 중심적이고 비협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조직적인 狩獵採集 方式을 채택하면서 발생했던 중요한 변화들 중의 하나가 分配 行爲였다.

인간과 다른 靈長類 사이에 생겨난 행위상의 현격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최초로 나타난 새롭고도 특이한 分配行爲는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점차로 생활에 順應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주게 되었다.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順應力 덕분이다(金光億 역, 1983).

狩獵採集的인 動物이 됨으로써 나타난 사회적 특성은; 첫째로 主根據地이다. 그곳은 어린이를 돌볼 수 있고 고기와 植物性 食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둘째로는 分業이다.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아기를 돌보거나 植物性 食량을 採集하는 책임을 분담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協同과 禁止에 대한 필요성이 엄청나게 증대했음을 들 수 있다. 이전의 어느 때 보다도 모든 個體들은 集團內 다른 者들의 행동과 책임에 한층 더 의존하게 되었다.

都市는 service area의 分配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 또 都市化는 service area의 확장이며, 集約度가 높아지면서 형성되는 都市化는 都市內部的 service area의 再分配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것이 分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人類가 가지는 독특한 社會組織이 都市를 낳게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都市體系는 機能의 分業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都市 居住者는 상호행동의 책임을 지고 相互依存하며, 도덕을 지킴으로써 도시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환경조건의 차이가 社會性 如否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社會的인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高等靈長類가 群居的 傾向을 띠는 것은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어린 시절

長期 學習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습이란 일종의 娛樂이며, 靈長類는 다른 어떤 동물 보다도 많은 시간을 학습하면서 보낸다. 그러나 學習은 어떤 목적이 있는 오락이다. 즉, 集團內의 個體들은 學習을 통해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얻는다.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살아 남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進化의 모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습은 어미와 새끼간의 紐帶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러한 紐帶關係가 社會單位를 성립시키고 그 단위가 모여 고차적인 社會組織을 만드는 것이다(金光億 역, 1983).

Kenya의 Bringo호수 근처의 丘陵地域에 Tugen族과 Njemp族의 文化的, 物質的 pattern을 보면; 두 部族은 소, 양, 염소에 의존하는 類似한 經濟體系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같은 땅을 共有하며, 部落도 매우 가까이 있다. 그들이 인접해서 살게 된 것은 몇 년이나 되었지만 몸 치장 양식, 物質的 生産物, 가옥구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비록 相關성은 있으나 상이한 언어를 사용한다. 두 集團은 접촉도 하고 또 물품거래도 몇 년동안 해왔으며, 그리고 혼인도 하고 있는 데도 이와같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Hodder는 이같은 物質文化 및 裝飾上의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部族集團을 엄밀하게 식별하는 것이 社會構造 維持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部族間의 상호행동이나 결혼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만약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결국, 규칙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미개사회에 이 두 部族間의 비교는 物質的 樣式의 차이가 경제상의 차이를 반영한다기 보다 오히려 제각기 특정한 社會集團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集團에의 所屬感이 樣式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樣式 속에서 물건들의 모양이 만들어 진다(金光億 역, 1983).

400萬의 人口를 가진 釜山市와 같은 규모를 가진 다른 都市와 비교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그 經濟的 地位와 그것을 반영하는 都市的 機能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 都市가 가지는 經濟的 特性 보다는 歷史的·社會的 構造의 차이에서

起因하는 것일 것이다. 또 같은 규모의 두 都市가 다르다고 하는 의미는, 먼저 그 都市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대두됨은 물론이다. 都市의 특성과 構造는 그 형태에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형태는 일차적으로 地形環境에 의해서 지배받을 것이다. 그것은 地形의 制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accessibility가 강한 쪽으로 行爲를 指向하게 됨으로, 地形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都市形態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 釜山은 그와같은 영향에 의해 都市形態가 형성된 대표적인 都市의 하나이다.

細胞學的 接近에서; 個體에 따라서 細胞의 형태가 달라지고, 細胞의 형태는 植物과 動物이 서로 다르다. 형태에 따라서 機能과 個體의 존재가 달라짐을 제시해 주고있다. 都市는 말하자면, 組織細胞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1:5,000의 釜山廣域市 地番略圖에서, 都市化가 성숙되고 都市土地利用의 역사가 오래된 CBD와 비교적 都市化가 미숙한 周邊地域과 비교해 보면, 組織細胞의 형태가 都市內部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은 形態와 機能 그리고 過程이 不可分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오묘한 攝理일 것이다.

受精卵이나 孢子 또는 어떤 작고도 비교적 단순한 原形質의 原基體(initial mass)에서부터 동물이나 식물의 기묘한 개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구상에 있어서 놀라운 현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나의 단순한 원시적인 原形質의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독특한 顯微鏡的인 生活體制(organization)를 가지고 있다(강영선 역, 1960). System of cities에서는 한개의 地域 혹은 點으로 나타나는 都市를 이와같이 close-up 시켜보면 마찬가지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生活體制를 설명하는 일이나 또는 원시적인 原形質體가 복잡하고 高等한 體制를 가진 成體로 漸進的으로 변형하는 데에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설명하는 것이 生物學者의 중요한 과업이다. 또한 細胞學的인 接近으로서 都市內部構造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形

態, 機能, 過程 그리고 構造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假定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이와같은 變形에는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한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構造와 機能上的 변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個體發生의 기본적인 개념을 일반적인 견지에서 生長, 分化 그리고 相互關係 등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生物과 細胞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都市와 비교하고자 한다.

生長(growth)이라고 함은 근본적으로 볼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原形質이 그 생활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原形質을 합성하는 것이다. 單一細胞나 그 외 原形質體(protoplast)들은 흔히 細胞液과 같은 어떤 非原形質的인 생성물이 세포안에 축적되기 때문에 세포가 점차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生長에 있어서 크기가 증가된다.

單純化하기 위해서, 한개의 둥근 核을 둘러싸고 있는 細胞質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세포를 통해서 보면, 核과 細胞質 이 두 부분은 각각 核膜과 原形質膜으로 싸여있게 된다. 새로운 原形質의 합성은 細胞質과 核 사이에서 物質의 교환이 생기며, 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은 核膜에 의하여 定量的으로 정해져 있다.

細胞나 核의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그 둘을 둘러싸고 있는 膜의 면적도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 증가는 兩者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核과 細胞質 간의 관계를 본다면, 그 이상 細胞質 전체의 生長을 유지할 수 없는 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難關은 核의 分裂로서 해결되며 原形質 안에 있는 核의 표면은 그의 부피와는 관계없이 증가하게 된다. 이리하여 결국은 核과 細胞質의 비가 臨界에 도달할때 까지 계속하여 生長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核이 모양을 바꿈으로써 表面積의 비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표면의 상대적인 전체면적은 核이 球形이 아닌 때가 더 크다.

初期의 都市 혹은 소규모의 都市에 있어서 商工業이 혼합된 都心이 형성되고 그 주위를 住宅地가 둘러싸고 있다. 이 住宅地와 都心과의 교

환이 이루어짐으로써 都市가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서 地域分化가 일어나며 都市域이 확장되어 간다. 이 때, CBD를 核으로 보고 CBD의 경계는 核膜으로 볼 수 있는데, CBD의 경계는 주로 街路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비유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原形質膜은 地理的 都市境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細胞의 生長形態와 都市의 발달과 그리고 都市의 地域構造의 변화와 유사한 것이 신비스럽기 조차하다.

球形인 細胞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와 유사한 生長의 제한은 原形質의 外部環境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原形質膜의 면적이다.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生長은 原形質體의 分裂로서 극복되거나 혹은 藻類의 경우처럼 細胞들이 平便하게 되거나 실과 같은 모양을 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다. 즉, 이상의 두가지 방법은 모두가 單位體積에 대한 表面積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들과 같이 體制가 큰 생물체에 있어서는 呼吸이나 循環系와 같은 특수한 구조가 있어서 몸의 내부와 외부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都市內部에서 그 集約도가 점차로 높아지면 地域分化가 일어난다. 확장될 면적이 제한되면 더욱 集約도가 높아져서 건물의 高層化가 일어나고 垂直的인 機能分化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細胞分裂이 原形質膜의 면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形相을 취하고 있다. 都市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외부의 energy를 흡수하여 都市勢力의 균형을 이루며 또 내부의 유통에 의해서 각 機能地域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體制가 큰 생물체가 가지는 특성과 흡사하다.

한개의 전형적인 原形質體는 보통 6개의 形質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市場, 行政, 交通原理에 의한 中心地 system의 형태와 서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Emrys Jones(1988)가 제시한 미래 都市發達の 여섯가지 형태와 서로 비슷한 樣相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細胞形態와 都市形態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경우, 이것은 하나의 主題로서 흥미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들 細胞의 生長形態가 그 細胞의 種類, 다시 말해서 細胞가 가지는 機能과 屬性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形態, 機能, 過程이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현상들이다.

分化(differentiation)라고 하는 것은, 原形質系에 있어서의 普遍的이고도 균일한 상태의 物質이 보다 특수한 異質의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分化는 어떤 일정한 機能을 나타낼 수 있는 局部的인 構造의 변형으로서 끝난다. 따라서 처음에는 전체의 부분이 노출되어 동일한 작용만을 나타내는 한개의 덩어리였던 것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系統의 것으로 나누어 지고 각각의 부분들은 한 종류 이상의 특수한 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대체로 分化로 인하여 '生活體制의 水準'은 높아진다.

分化는 前述한 어떤 종류의 原形質의인 生長形態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原形質體의 構造에 있어서도 서로가 조화된 행동을 하고 있는 특별히 部分化된 原形質이나 核 또는 膜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原始的인 生活物質 안에서의 오랜 세월을 통한 分化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이다. 分化는 하나의 個體가 system化로 指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都市內部에 있어서 이와같은 分化는 地域分化 혹은 專門化(specialization)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은 細胞의 分化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都市發生初期에 있어서 住·商·工業地帶가 한 地域에 混在되어 立地하고 있다. 이것은 未分化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分化가 일어난다면 이들 주택, 상업, 공업기능은 專門化되어 각각의 機能地域으로 分化되어 갈 것이다. 未分化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分化에 필요한 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비교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몸의 일반적인 형태나 혹은 동일한 機能을 갖는 器官의 형성으로 끝나게 되는 分化는 서로 다른 형태의 原形質系에서 생긴다는 사실이다.

神秘主義的 接近에서; Walter Christaller가 처

음으로 中心地理論을 발표했을 때 그의 주위의 학자들은 그를 outsider라고 간주하고 또 그의 idea를 數字로 표시한 神秘主義라고 생각하고 있었다(Hottes, 1983).

心理는 두가지의 相互補完의이긴 하지만 정반대되는 영역인 意識과 無意識으로 구성되어 있다. Jung은 여러개의 diagram을 도입하여 人間心理의 性質과 構造를 분석하였다. Jacobi(1975)는 Jung의 心理學에서 14개의 單純化한 diagram을 그려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모두가 圓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圓은 비교적 완전하다고 하는 個人心理의 總體를 나타낸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diagram들의 형태가 어떤 것은 Burgess의 model과 혹은 Hoyt의 model과도 닮아 있다. 또 우리나라 太極旗의 太極圖도 인용하고 있어서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이것은 인간의 心理構造와 都市構造는 그 형태가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하고, 太極圖는 曲玉(新羅의 王冠에 많이 장식되어 있는 약간 구부러진 玉) 두개를 서로 엇갈리게 맞붙여 놓은 形相이 아닌가 한다.

이 diagram에서 보면, 自我(ego)는 相互補完의이며 또한 相互補整의인 두 領域 사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심은 抽象的인 위치일 뿐이다. 두 領域인 意識과 無意識의 境界線은 變化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두 領域의 범위가 相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의 면적은 작아진다는 것이다.

都市를 구성하고 있는 각 機能地域은 相互補完의인 관계에 있으면서 CBD를 둘러싸고 있지만, 特定機能地域의 空間이 넓어지면 따라서 다른 地域의 면적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土地란 제한되어 있는 經濟財이기 때문이다. 또한 都市를 형성하고 있는 諸因子들의 영향력과 그 중요성에는 각각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하나의 特定因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他因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相反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意識이란 無意識에서 극히 최근에 分化되어

나온 產物임을 감안해 보면, 都市形成因子들 중 인문적인 인자가 최근에 자연적인 인자에서부터 탈피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自我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意識의 범위가 넓어짐과 마찬가지로 都市에서는 人文的인 要素의 중요성이 더 확대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心理構造와 都市構造를 비교할 수 있다는 하나의 素朴한 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보자. 중심에 하나의 점을 둔 세개의 同心圓을 가진 Jung의 diagram이 있는데, Burgess의 model과 흡사하다. 同心圓의 중심은 自我를 나타내고, 이것은 意識圈에 의해서 둘러 싸여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外部的인 현실에 적응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心理의 一面을 나타낸다. Jung은 '나는 意識世界的의 중심을 구성하고 高度의 持續性과 同一性을 가지고 있는 표현의 complex를 自我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며, '自我를 意識의 主體(the ego the subject of consciousness)'라고 불렀다.

또한 意識을 '自我를 가진 心理的인 內容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機能 혹은 活動'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外面世界와 內面世界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경험은 우리들의 自我를 통해서 知覺된다. 왜냐하면, '이들 경험들이 自我에 의해서 이와같이 知覺되지 않는 한, 自我에 대한 관계는 無意識이기' 때문이다.

上述의 model에서 보면, 外部圈에서 內部로 들어 가면서 集團無意識圈, 個人無意識圈, 意識圈, 그리고 그 중심에 自我가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은 그 인접한 內部圈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은 인접하고 있는 外部圈이 그 內部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集團無意識이 個人無意識에, 다시 개인의 無意識은 意識世界에 영향을 주어 自我를 형성하고 있다. 意識世界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욱 확실해 지고 따라서 自我도 명확하게 형성되는데, Burgess의 第2圈을 意識世界로 가정해 보면 自我는 CBD가 될 것이다.

都市가 성장함에 따라서 漸移地帶인 第2圈이 형성되고 CBD의 機能이 더욱 강화된다. 第2圈

은 Burgess에 있어서 CBD와 第3圖의 中間의 特性을 가지고 있음과, 또 그 機能도 혼합되어 가장 불안정하여 변화가 심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Jung의 意識世界는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른 圈에 비해서 가장 변화가 많은 圈임에는 틀림이 없다.

인간의 心理構造를 연구함에 있어서 心理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排列狀態를 model化함으로써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은 都市構造를 밝히기 위해서 그 構成要素들이 어떠한 空間排列 형태를 示顯하고 있는가를 먼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集團無意識 가운데서도 意識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Burgess의 第2圖으로 侵入하는 機能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Jung의 心理構造와 都市構造를 비교할 수 있다는 妥當度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詩形態論의 接近에서; 어떤 주어진 事物이나 事件의 현상을 이해할 때 觀點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 경우, 어떤 의미의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 하는 것이 現象學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觀點의 차이(혹은 입장)는 觀點과 對象과의 距離, 方向에 따라서 그 의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地理學者들이 연구에 있어서 적절한 縮尺의 地圖를 선택하는 것은 이와같은 觀點에서 이다.

心理的 距離(金峻五, 1982)란 美的 觀照의 대상과 이 대상의 美的 呼訴로부터 鑑賞者 자신을 分離시킴으로써 즉, 實際的 要素나 目的으로부터 그 對象을 分離시킴으로써 획득된다. 美的 距離(혹은 心理的 距離)는 공간적이나 시간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本質上 心理學的이다. 距離 또는 分離는 예술의 감상에 필수적인 觀照의 태도이며, 美的 태도이고 감상자의 客觀성이다. 물론 距離 또는 分離는 美的인 주목이 쏠리는 대상으로 부터의 距離나 分離가 아니라 감상자의 실제 개성이나 公理的 관심으로 부터의 距離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內面的 距離이다.

心理的 距離는 詩人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처리하는 대상의 본질에 따라 다소 다양하다. 距離調整에 있어서 兩極端은 부족한 距離調整(underdistancing)과 지나친 距離調整(overdistancing)이다. 부족한 距離調整은 題材에 대한 詩人의 心理的 距離가 아주 짧은 경우이다. 詩인이 자기 감정을 양식화하지 않고 직접 發火하는 絶叫의 형태가 부족한 距離調整이다. 이것은 詩의 感傷性(sentimentality)인데, 지나치게 되면 詩人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都市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都市라는 對象과 都市에 접근하려는 분석자와의 적당한 距離가 중요하다. 그것은 心理的이나 혹은 物理的인 距離라도 좋다. 物理的 距離는 地圖의 縮尺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心理的인 距離는 觀察者의 都市에 대한 자세일 것이다.

인간적인 觀點으로 事物을 보면, 우리는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 事物들의 序列의 秩序를 부여한다. 인간적인 觀點에서 본 價値의 序列에 따라 事物에 序列이 생기 마련이다. 예컨대, 人間, 生物, 無機物의 順序로 우리의 價値는 달라진다. 그러나 인간적 觀點을 廢棄하는 경우, 이 序列은 逆轉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事物의 序列을 逆轉시켜서 非人間化를 가져오고 이런 非人間化에서 현실과의 心理的 距離를 최대한으로 팽창시키는 것이다.

人間들 속에서  
人間들에 밝히며  
잠을 깬다.  
숲 속에서 바다가 잠을 깨듯이  
젊고 튼튼한 상수리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본다.  
남의 속도 모르는 새들이  
금빛 깃을 치고 있다.

-金春洙 「處容」-

이 작품에서 인간과 상수리나무의 序列이 뒤바뀌어 있다. 즉, 話者는 인간보다도 상수리나무에 더 價値를 느끼고 있다. <젊고 튼튼한 상수리나무>가 <人間들에 밝히며/잠을 깬다>는 陳



述에서, 우리는 話者의 인간에 대한 혐오감과 상수리나무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이 詩의 관점은 분명히 非人間的 관점이며, 이 관점에 의해서 價値의 序列이 바뀌어 실제 살아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특수한 詩的 世界가 형성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을 解體시키는 인간적 관점에 의한 價値의 序列을 逆轉시키는 非人間化는 현실로부터 心理的 距離를 최대한 팽창시킨 예술의 방법이다.

따라서 話者의 인간적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客觀的 相關物을 사용한 만큼, 現象的으로 話者와 陳述하는 對象사이에서 확연한 距離를 둔 客觀性을 느끼게 한다. 즉, 話者가 對象속에 들어가서 對象의 일부가 된 것으로 제시되지 않고, 마치 話者가 작품 밖에 서서 相對的으로 독자와 똑같은 距離에서 對象을 바라보고 客觀的으로 스케치 하는 것 같은 內面的 距離를 느끼게 한다. 排除의 原理가 작용한 非人間化의 詩에서 느끼는 이 距離의 客觀性을 그 질감은 다르지만 살아있는 現實과 人間이 제시된 詩에서도 느낄 수 있다.

都市內部에 있어서, 序列이라고 하는 것은 內部的 階層構造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CBD는 都市의 중앙에 위치하고, 周邊地域으로 향하다가 거기에 subCBD가 結節되고 있는 空間的 序列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都市의 內部構造이다. 그러나 이 序列이 逆轉되어 버린 都市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釜山은 그 地理的 中心에 subCBD가 立地하고 있으며, 오히려 市域의 南端에 CBD가 위치하고 있는 지극히 왜곡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都市機能에서 뿐만 아니라 形態에서 더욱 잘 표현되고 있다.

CBD는 都心으로서, accessibility가 가장 강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유리한 立地를 占有하게 되는데 釜山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釜山에 있어서는 subCBD의 accessibility가 훨씬 강하다. 그러나 釜山市民들은 아직도 CBD를 都心(市內)으로 생각하고 있다. 詩의 序列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內面的 距離 혹은 心理的 距離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人間的으

로 느끼는 距離가 아니라 오히려 非人間的으로 接近되는 距離가 釜山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地理的 位置의 序列은 非人間的인 관점이 「處容」에서 처럼 그 중요성을 逆轉시키고 있다.

都市에 있어서 都市形態가 먼저 형성되고 거기에 모든 都市構成要素들이 立地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都市의 有機的인 機能의 수행을 방해하게 되어 그 都市自體를 衰退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都市化와 都市의 人口增加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都市形態는 都市構成因子와 要素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서서히 결합되고 調和된 결과인 것이다.

또한 都市의 가장 모식적이고 전형적인 형태가 圓이라고 한다면 圓의 형태를 가진 모든 空間이 都市는 아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圓이어서 有機的으로 都市機能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 都市의 質이 최상인 것만은 아니다. 時代의 요청에 의해서 都市化의 방향에 따라서 都市는 새롭게 발전되고, 또다시 형성되어 가면서 都市形態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都市形態가 時代에 따라서 제멋대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空間法則이나 原理가 있으며, 空間的 리듬을 가지고 발전되어 갈 것이다. 自由詩는 文章이 散文이고 構成이 자유롭다. 그러나 自由詩의 散文은 그것이 詩인 以上 形式上 散文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보통 散文과는 다르다. 自由에는 그의 앞에 抵抗物이 있다. 詩에 있어서 言語가 抵抗物이다. 새도 나는데 있어서는 공기의 抵抗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言語의 抵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詩人 各自의 個性에 달렸다는 것 뿐이다.

言語의 抵抗을 통하여 詩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형태는 또한 그가 言語의 抵抗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技巧과 방법에 따라 각양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만한 정도의 自覺도 없을 적에 형태는 必然性을 잃고 不自然해지면서 형태이자 동시에 형태가 아닌 矛盾을 드러내는 것이다(金春洙, 1982).

都市가 자유롭게 성장하여 독특한 형태를 示顯하고 있는 것은 成長途上에 어떤 抵抗物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抵抗物이 없이 都市가 성장한다는 것은 現實世界에서는 '不在'일 뿐이며, 그러면 都市形態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Accessibility의 弱화가 바로 抵抗物의 核心이 되며, accessibility를 감소시키는 지형적 장애, 距離 또는 사회·경제적 장애들은 그 요소가 될 것이다. T. S. Eliot는 '글자 그대로의 자유로운 詩란 아무데도 없다. 詩는 제약이 있어 비로소 詩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의미 그대로 자유로운 都市란 없다. 제약이 있으므로 都市는 結節되고 都市内部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맞는 空間 model을 도출하여 空間原理, 空間法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또한 사명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西洋에서는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한 연구의 방법이나 主題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룩한 연구가 없었다면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을 調和롭게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연구 없이는 空間法則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Sweden의 Lund學派에서는 Haegerstrand의 model을 보고 '지리학자가 만들어 낸 최초의 지리학 model'이라고 自畫自讚 겸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와같은 model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Christaller가 1932년 中心地理理論을 발표했을 당시에 그는 共產主義者라는 낙인이 찍혀서 '나찌'정권의 압박을 받을 때였다. 결국, Christaller의 理論을 최초로 도입하고 번역한 나라가 독일이 아니고 바로 Sweden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學問의 成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世代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 4. 都市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提言

都市는 인류가 창조해 낸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하나로서, 인류의 생활활동의 증추인 동시에 人類文化 結晶의 구체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또한 都市는 인류의 번영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회망하는 존재를 창조할 때 동시에 그 결과로서 원하지 않았던 존재도 함께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矛盾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어떻게 止揚해야 할 것인가는 都市問題 해결에 하나의 중요한 접근이 될 것이다.

都市에 있어서 物質의 변화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都市를 하나의 system으로 생각하여 그 model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접근일 것이다. 이와같은 都市 model을 만드는 경우 크게 두가지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都市 전체를 하나의 物質系로 보고, 都市와 都市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間에 어떻게 物質이나 energy의 代謝가 행해지고 있는가의 특징을 밝히는 model이다. 이 경우 都市의 内部構造는 black-box가 된다. 이것은 都市 物質系의 model로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러한 都市는 마치 인간의 身長, 體重, 하루의 食物이나 물, 大氣의 攝取量을 명백히 하는 것과 같으며, 가장 기본적인 都市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朴奉圭, 1979).

둘째, 都市의 内部構造를 고려한 model이다. 즉, 하나의 都市 物質系를 몇 개의 subsystem으로 分割하고 그 subsystem의 각각이 어떠한 物質代謝를 행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Subsystem의 설정방법은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① 行政區劃; 行政區域을 그대로 都市 物質系의 subsystem으로 사용할 수 있다. 行政上 필요한 기본적인 社會·經濟·行政의 統計值를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都市 物質系의 설정 기준이 된다. ② 空間 mesh 區分; 都市地域을 mesh로 구분하는데, 이 경우 한개의 mesh內는 black-box가 된다. 都市內의 物質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대단히 유효한데 mesh의 규모는 목적과 접근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③ 構造에 의한 區分; 앞의 것은 空間的으로 연속된 subsystem이다. 같은 構造 또는 형태를 가진 것들을 일괄하여

하나의 subsystem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不連續的 일 수도 있다. ④ 機能에 의한 區分; 機能과 構造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機能別로 subsystem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構造의으로는 한 地域이 subsystem을 構成하는 경우라도 그 內部에서 여러개의 機能地域의 sub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上記와 같은 都市 model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區分된 각 空間單位(혹은 單位地域)의 전체적 構造는 현실적으로는 먼저, 그 都市의 機能에 의한 것이 아니라 site로 대표되는 형태 혹은 자연적, 특히 지형적인 因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나서 二次的으로 機能이나 기타 社會經濟的 組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都市生態系를 파악함에 있어서 먼저 그 형태를 고찰해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都市 model 설정에는 단순히 system과 subsystem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system과 subsystem과의 관계, subsystem間的 관계를 밝히는 model의 표현이 필요하다. 또 system과 subsystem의 설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으로서 全 system의 機能은 그 subsystem 機能의 總和가 아니고 여기서 + $\alpha$ , - $\beta$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the parts)

$$\text{system 機能} = \sum \text{subsystem 機能} + \alpha - \beta$$

이 + $\alpha$ , - $\beta$ 는 각 subsystem이 어떻게 서로 依存關係를 가지면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 依存關係는 自然科學的, 社會科學的, 文化的인 모든 因子가 參與한다. Max Weber 이래로 近代都市의 입지조건이 社會·經濟的 要因에 의해서 이끌린다고는 하나, 上記의 model에서 보면 지형적인 조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형적인 조건이 우선하여 都市形態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論理일 것이다.

都市는 人間이 만들어 낸 환경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식이며 都市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都市와 人間關係의 複雜性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都市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創造하였고, 우리가 또 성장시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韓國地域地理學會를 중심으로 한 地域研究에서 空間法則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時代인 21世紀의 100년간의 어느날 우리들의 後世들이 空間法則을 발견했을 때, '20世紀末에 우리들의 선배들이 이런 法則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學會를 創設하고, 우리나라의 地域을 살살히 발로, 눈으로 뒤지면서 기초연구를 해 두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적된 연구가 오늘의 이 法則을 발견하도록 했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古山子 金正浩 先生의 後裔임을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 文 獻

- 강영선 역, 1960, 기본세포학, 한국번역도서, 서울.  
 權壽九 편역, 1981, 現代文化人類學, 探求堂, 서울.  
 金光億 역, 1983, 오리진, 學園社, 서울.  
 金美亨, 1983, 家庭主婦의 日常的 空間行動과 時間,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元經, 1975, 大邱市 中心 商店街의 地理學的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元經, 1979, 釜山市 中心 商店街의 地理學的 研究: 光復洞 및 南浦洞의 土地利用과 繁華街의 特性, 釜山女大 論文集, 7, 255~282.  
 金元經, 1984, 釜山市 內部的 階層構造; 主要商店街의 繁華街의 特性을 中心으로, 釜山女大 論文集, 17, 397~473.  
 金元經, 1985, 釜山市 內部的 空間形態, 釜山女大 論文集, 19, 329~450.  
 金元經, 1992, 釜山市 朝紡앞 商店街의 Pattern(I), 釜山女大 論文集, 34, 197~287.  
 金元龍, 1981, 韓國美的 研究, 悅話堂, 서울.

- 金蓮敏 의 역, 1979, *Odum 生態學*, 螢雪出版社, 서울.
- 金峻五, 1982, 詩論, 文章社, 서울.
- 金昌經, 1982, 存在와 非存在, 三研社, 서울.
- 金春洙, 1982, 金春洙全集 2 詩論, 文章社, 서울.
- 朴奉圭, 1979, 教養生態學,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서울.
- 裴淑姬, 1991, 韓國의 都市貧民地域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徐贊基, 1993, 韓國農業의 地理學的 研究, 徐贊基教授 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 李喜演, 1991, 地理學史, 法文社, 서울.
- 林永大, 1971, 中小纖維工業의 空間變化: 大邱西部의 境遇, 慶北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 崔爽周, 1994, 大邱市 都市計劃의 地理學的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洪慶姬, 1975, 大邱市 周邊地域 Central Place의 機能, 東洋文化研究, 慶北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2, 127~183.
- 洪慶姬, 1979, 韓國都市研究, 洪慶姬 博士 回甲紀念論文集 發刊委員會.
- Hottes, R., 1983, Walter Christaller, *Annals of A.A.G.*, 73(1), 51~54.
- Jacobi, J., 1975, *The Psychology of C. G. Ju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Jones, E., 1988, *Town & C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 Murphy, R.E., Vance, Jr., J.E. and Epstein, B.J., 1955, Internal structure of the CBD, *Economic Geography*, 31(1), 21~46.
- Murphy, R.E. and Vance, Jr., J.E., 1954, A comparative study of nine central business districts, *Economic Geography*, 30(4), 301~336.
- Murphy, R.E. and Vance, Jr., J.E., 1954, Delimiting the CBD, *Economic Geography*, 30(3), 189~222.
- Schaefer, F.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A.A.G.*, 43(3), 226~249.
- Thomlinson, R., 1989, *Urban Structure: the Social and Spatial Character of Cities*, Random House, New York.

## A Reconsideration to the Trends of Korean Geographical Researches

Won Kyung, Kim\*

### Summary

We Korean geographers have been interesting merely in research trends and models which induced in more advanced societies. We unconcerned with the models were painfully acquired through many field surveys and accumulated researches.

Approaches to the generalization without accumulating experienced studies are just like 'building on the sand' and 'it is nothing but the paper'. We still need many field surveys, regional approaches and very basic researches for induced the Korean geographic models. In geography, 'where' is not main goal. 'Why and how' are the most important. We know these very

much. But we do not recognize that 'what is where' in Korea, still now.

We must have our own Korean spatial models. But geography is not build in a day and in one generation. It needs interdisciplinary or system approaches accompany with the other fields of sciences. We concern with the spatial principles and laws which were hidden by the complicated phenomena in real world.

**Key words:** basic researches, accumulating studie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Korean methodology.

---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Pusan Women's University